

광주시-군, 군공항 소음 저감 머리 맞댔다

이용섭 시장-1전비행장 면담 시민 체감 대책 마련 요청

광주시와 공군 제1전투비행단이 군공항 소음을 최소화하기 위한 공동 대응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정부 주도로 광주 군 공항 이전지역에 대한 대규모 인센티브 제공 등 초대형 '빅-딜'이 부상하고 있지만, 공항 이전이 확정되더라도 수년간의 이전 일정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30일 광주시 등에 따르면 이용섭 광주시장은 이날 광산구 공군 제1전투비행단을 방문해 권오석 단장과 전투기 소음 저감 대책 등을 논의했다.

이번 면담은 최근 군공항기 소음으로 피해를 호소하는 시민이 급증함에 따라 이용섭 시장의 요청으로 이뤄졌다.

이 시장과 권 단장은 관제탑과 군부대 내 시설을 둘러보고, 소음저감 대책과 민원해소 방안 등에 대한 깊이 있는 의견을 나눴다. 이 시장은 이날 면담에서 최소한 야간과 휴일·주말 등 시민들이 집중적으로 거주하는 시간대만이라도 비행자제 등 소음 경감 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요구했다.

권 단장은 "제1전투비행단은 한반도 서남부지역 영공방위 임무와 대한민국 전투기 조종사 양성을 주 임무로 수행하며, 매일 주야할 것 없이 훈련을 계속해야 하는 실정"이라면서도 "소음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시뮬레이션 모의비행 훈련을 확대하고 꼭 필요한 최소한의 야간훈련만 실시하겠으며, 이착륙 절차를 개선하는 등 다각적인 노력을 하겠다"고 밝혔다.



이용섭 광주시장이 30일 광산구 공군 제1전투비행단을 방문해 권오석 단장과 함께 전투기 소음이 발생하는 현장을 둘러보고 있다. <공군 제1전투비행단 제공>

이 시장은 "반세기 넘게 국가안보라는 이유로 기본권을 침해 당해온 광주시민들의 피해가 최소화할 수 있도록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소음저감 대책을 마련해달라"고 강조했다.

광주시와 공군 제1전투비행단은 이번 만남을 계기로 광주 군공항 항공기 소음 피해 저감을 위한 자료를 공유하고 추진계획을 상호 협의하는 등 지속적으로 협력해 나가기로 약속했다.

한편 팍 막혀 있던 광주 군공항 이전도 해결의 실마리를 찾아가는 분위기다. 이용섭 광주시장과 김영록 전남지사, 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 송갑석(광주 서구갑) 광주시당위원장, 서삼석 전남도당위원장, 김산 무안군수 등 6명은 최근 광주 서구라마

다플라자광주호텔에서 비공개 회동을 갖고 광주 군 공항 이전 문제를 논의했다.

광주 군 공항 이전 문제를 놓고 광주-전남의 광역단체장과 시도당 위원장, 청와대 수석, 이전 대상 후보지 기초 단체장 등이 한 자리에 모인 것은 처음이며, 이날 회동에서 강기정 정무수석은 광주 군 공항 이전과 관련 단순한 '기부 대안' 방식에서 벗어난 패키지 빅-딜 방안을 제시해 지역 사회의 관심이 집중됐다.

광주 군 공항이 무안국제공항으로 이전된다면 기존의 4500억 원 규모의 지원 외에 임대 및 병원 유치, 공공공사 등 공공기관 이전, 송배전로 신설을 포함한 서남해안 풍력단지 배후시설 조성, 'RE 100(Renewable Energy 100)' 산단 유치 등의

각종 인센티브를 부여한다는 내용 등이다. 광주와 전남이 군 공항 이전 조건을 합의하고, 청와대와 정부의 지원을 이끌어내자는 게 강 수석의 구상이다.

이날 6차 회동에서 구체적 결론은 나지 않았지만 지원 범위가 확대된 개념의 군 공항 이전 방안이 논의됐다는 자제만으로도 의미가 크다는 평가들이 나온다. 광주 군공항 유력 이전지로 꼽히는 무안군과 전남도는 내부 검토 등을 거친 뒤 추후 6차 회동에 다시 참여할 방침이다.

광주시 관계자는 "군 공항 이전은 1-2년 사이에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면서 "군 공항 이전과는 별개로 시민들의 소음 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진표 기자 lucky@

'남도한바퀴' 8월 1일 다시 달린다

전남도, 야외관광지 편성 등 코로나 예방 최선

전남도가 코로나19 사태로 중단된 남도한바퀴 여름상품 운영을 8월 1일부터 재개한다.

전남도는 30일 "코로나19 확산세 안정화로 사회적 거리두기가 1단계로 전환함에 따라 도내 관광시설물이 정상 가동할 것으로 예상해 남도한바퀴 운영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남도한바퀴 여름상품은 코로나19를 피해갈 수 있도록 실내관광지 보다 개방된 야외관광지로 편성했으며, 승차인원을 45좌석에서 20좌석으로 축소해 거리두기와 철저한 방역지침을 준수해 운영할 방침이다. 상품별로 각각 여행테마가 있어 관광객들의 흥미를 돋울 예정이다.

총 25개 테마로 구성된 여름상품은 선원들의 뜨거웠던 모습을 가슴에 새길 수 있는 '가슴팍 꼭 여행', 풍경과 문학을 함께 누릴 '풍문여행', 추억의 기차전으로 영화 주인공이 되는 '나도 주인공 여행' 등으로 흥미있는 테마를 골라 즐기면 된다.



새롭게 개발된 관광지와 숨은 관광명소 25개소도 신규코스로 포함했다. 특히 고흥-여수 간 백리섬섬길 영산강강변도로와 해남 포레스트수목원, 구례 산수유사목지 및 천개의 향나무숲 등은 코로나 19로 심신이 지친 여행객들에게 힐링과 휴식을 선사하기 충분한 관광지다. 여름상품과 더불어 '남도한바퀴 새바 여행'도 재개된다. '새바여행'은 KTX고속열차를 타고 광주송정역에서 내려 남도한바퀴 버스여행을 즐기는 것으로, 저렴한 이용요금과 편리한 출발로 하루만에 전남 바다여행을 할 수 있는 여행상품이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전남도 '4050 취·창업 지원사업' 호응

구직경비 90만원·창업자금 1500만원 지원

전남도가 실직중인 중년들의 경험을 활용, 재취업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한 '4050세대(신중년) 맞춤형 취·창업 지원사업'이 호응을 얻고 있다. 모집 당시 예정 인원을 초과해 2배가 넘는 인원이 사업 참여를 신청할 정도다.

30일 전남도에 따르면 지난 3월 고용부 등 관계기관과 협의를 거쳐 5월 사업 홍보와 공고 후 6월 평가를 거쳐 '4050세대(신중년) 맞춤형 취·창업 지원사업' 참가자 85명을 최종 선정했다. 사업은 올해 말까지 선정 대상자 모두 취·창업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번 사업은 '4050 인성2막 희망 리턴업 프로젝트'와 '4050+ 맞춤형 창업지원 사업'으로 구성됐다. '4050 인성2막 리턴업 프로젝트' 사업은 전남에 거주한 4050세대 구직자를 대상으로 교육과 컨

설팅, 취업특강 등 맞춤형 역량 강화프로그램을 통해 취업을 연계한 사업이다. 현재 70명이 선정돼 참여 중으로 1인당 최대 90만원의 구직경비가 지원된다.

'4050+ 맞춤형 창업지원 사업'으로는 창업희망 신중년을 대상으로 창업 전문지원단을 통해 맞춤형 콘텐츠 개발과 창업교육, 컨설팅 등 창업에 대한 지원이 이뤄지고 있다. 현재 15명이 대상으로 최대 1500만원의 초기 창업자금을 지원 받을 수 있다.

실제로 미국에서 대학 졸업 후 영어강사로 일하던 40대 후반 김모 씨는 지난 2018년 퇴직하고 일자리를 찾던 중 올해 대상자로 선정됐다. 본인 전문 분야인 영어통역서비스 경력을 활용할 수 있는 기업에 대한 취업을 준비하며 인성2막을 설계중이다. /윤현석 기자 chadol@

광주 AI 종합지원센터 개소

투자 전 과정 원스톱 제공

인공지능(AI) 기업들에 필요한 서비스를 원스톱 제공하는 광주 인공지능 종합지원센터가 30일 광주 테크노파크에서 문을 열었다.

종합지원센터는 입주공간 제공, 투자 유치, 기술개발, 인력 수급, 법률·특허·금융·경영 상담 등을 지원한다.

종합지원센터는 기술, 비즈니스, 창업, 금융, 법률 전문가로 멘토단을 구성하고 기업별 상황에 따른 맞춤형 지원 서비스를 위한 프로그램도 운영한다.

수사·정기로 구분해 운영하고 앞으로는 해외 전문기관과 연계한 글로벌 멘토링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광주시 관계자는 "지역을 대표하는 AI·창업 지원 전문기관인 테크노파크에 센터가 개소하면서 광주에 동지를 뜨는 창업·기업인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진표 기자 lucky@

국고보조금시스템 사용요령 서남권 교육센터 역할

年 1만4천명 방문...재정정보원 광주사무소 본격 운영

기획재정부 산하 준정부기관으로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을 운영 관리하는 한국재정정보원의 광주 지역사무소가 30일 현판 제막식을 갖고 본격 운영에 들어갔다.

이날 현판 제막식에선 코로나 여파를 감안해 별도 축하 행사는 하지 않았다.

한국재정정보원은 2016년 7월1일 서울역 인근에 문을 열었으며, 연간 86조7000억원(예산 기준) 규모의 국고보조금 교부·사용·정산 등 전체 과정을 전산화 관리하고 있으며, 이 전산시스템을 사용하는 36만여명에게 시스템 사용법과 국고보조금 투·융관리방법 등을 교육한다.

한국재정정보원 광주지역사무소는 매년 200회(1회당 70명씩)씩 광주·전남·북·제주·경남 서부권 등 국도 서남권 내 광역·기초지자체 국고보조금 담당 공무원과 민간



조인철(왼쪽) 광주시 문화경제부시장과 김재훈 한국재정정보원장이 30일 금호생명빌딩에서 열린 한국재정정보원 광주지역사무소 개소식에 참석, 현판식을 하고 있다.

보조사업자를 대상으로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 사용법 등을 교육하는 역할을 맡는다.

한국재정정보원의 지역사무소는 지난 1일 대전 지역사무소 개소에 이어 광주가 두 번째로, 광주시의 적극적인 유치 노력

으로 개소했다.

시는 광주 지역사무소 개설로 1만4000여명의 교육생이 광주를 방문할 것으로 보고 있으며, 음식업·관광 분야에도 경제적 파급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물류창고 화재안전 점검

전남소방본부는 30일 전남도내 물류창고 65개소를 대상으로 화재안전 실태 조사를 착수했다.

이번 조사는 최근 경기도 용인교 이전 물류창고 등에서 화재로 많은 인명피해가 발생함에 따라 도민 불안을 해소하고 시설 전반에 대한 안전실태를 확인하기 위해 마련됐다.

조사는 다음달 25일까지 진행되며, 대상은 냉동·냉장창고를 비롯 물류터미널, 집배송시설 등 65개소다. 이번 조사를 위해 전남소방본부는 소방·건축·전기·가스 등 분야별 유관기관이 참여한 합동조사반을 구성한 바 있다. 합동조사반은 소방시설 현황과 소방시설 정상작동 여부, 피난·방화시설 유지관리 상태 확인 등 물류창고 안전 상태를 전반적으로 점검할 방침이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내 삶이 하나 듯... 수목장은 보성 늘푸른입니다.

고객상담센터 062-412-2800

자연이 준 삶 자연으로 돌려주세요

세상이 변하듯 ... 장묘문화는 수목장이 대세입니다.

자연장의 장점

- 매장이나 봉안에 비해 비용이 매우 저렴합니다.
- 관리가 편하며 반영구적입니다.
- 생활공간과 가깝습니다.
- 국토를 효율적 활용 자연을 보존할 수 있습니다.

잊히지 마세요.
잊지 마세요.
자연에서 기억하세요.
사람은 원래 자연입니다.

보성군 소재

(순천, 화순, 나주, 여수, 광양, 고흥군, 장흥군)

수목장 * 자연장

자연과 인간이 함께하는 새로운 장묘문화입니다

화장한 후 잔디나 화초, 나무 밑에 유골을 묻어 고인을 자연으로 되돌아가게 하는 아름다운 장묘문화입니다.

저렴한 비용으로

10기 이상 선산도 가능합니다.